

글로벌 조달시장 청년 전문가를 향한 뜨거운 열기 「2026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

- 7월 6일부터 4주간 일정... 60명 선발에 역대 최대 209명 교육 신청
- 무역, 해외영업 등 해외 B2G '집중교육'... 우수 교육생엔 조달청장 표창 수여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6일 KT대전인재개발원(대전광역시 서구 소재)에서 '2026년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강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외조달시장 전문인력 양성과정은 해외 정부 및 공공기관, 국제기구 등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청년의 역량과 전문성을 개발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직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와 실습 위주의 커리큘럼 구성이 특징이다.

글로벌 조달시장은 경쟁가능 시장규모가 2조 달러에 달하는 유망한 시장이지만, 진출 수요에 비해 전문성을 보유한 인력이 부족하여 우리 기업은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달청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대해 체계적인 지식을 가진 청년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부족한 관심도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전문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매년 운영하고 있다.

교육생 60명을 선발하는 올해 교육과정에는 역대 최대인원인 209명이 신청하여 해외 B2G 직무에 대한 청년의 높은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육과정은 7월 한 달간 합숙교육으로 실시되며,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무역, 해외영업 실무는 물론 해외 기관 벤더 등록, 입찰제안서 작성, 계약 체결 등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에 필요한 종합 교육을 제공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및 해외 진출 전략 수립 등 현장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을 신규 실시하고, 우수 교육생에게 조달청장 표창을 수여하는 등 교육생의 커리어 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조달청 이형식 기획조정관은 “글로벌 조달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입찰 및 기관 네트워크 등 특화된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면서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생이 선발된 만큼, 이들을 최고의 전문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기획조정관 국제협력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혜경	(042-724-7554)
		담당자	사무관	고성주	(042-724-6492)

